



한국경제의 位相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 : 挑戰과 機會*

司空 壹(본 연구원 이사장)

한국경제의 어제와 오늘

보통 30년을 한 世代로 본다. 그런데 이 한 世代란 기간은 한 나라의 역사나 世界史의 흐름에서 볼 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30여년간 - 즉 한 世代동안 - 이룩한 경제적 업적은 '漢江의 奇蹟'이라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것임은 自他가 인정하는 바이다. 오늘날의 先進諸國들이 과거 적어도 3~4 世代에 걸쳐 이룩한 정도의 경제적 업적을 이 짧은 기간에 이룩해 낸 것이다.

그 결과 불과 30여년전 絶對貧困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희망없는 나라'로 여겨지던 한국이, 오늘날 소위 新興工業國의 선두주자가 되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현실은 經濟成長이란 複利(compound interest)의 게임이란 사실을 웅변하고 있어, 오늘날 많은 後發開發途上國들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前 計劃經濟體制下의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위 '開拓者的 國家(pioneer nation)'가 되어 이들의 부러움과 배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이 글은 1994년 12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대외경제전문가 「풀」 연차총회에서의 특별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임.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

오늘날 한국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挑戰을 맞고 있다. 첫번째 도전은 우리 경제의 '성공'이 가져온 對內的 변화에 의한 것이며, 두번째 도전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세계경제 여건 변화가 몰고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對內的 성공이 갖고 온 도전은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에서 선진공업국으로 변신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선진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競爭하여야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진공업국이 된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産業構造를 오늘날 선진제국의 그것과 같게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이들 나라가 생산해 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더 질 좋게, 더 값싸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지금까지의 勞動 내지 일부 中間技術集約的인 산업구조에서 高度技術 내지 頭腦 혹은 知識集約的인 선진 산업구조로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경제의 성공이 갖고 온 또 하나의 도전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位相에 걸맞은 역할을 해 나가는 일이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세계 有數 交易大國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 예를 들면 우리 市場의 開放과 같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런 일들을 적절히 해내야 하는 것 - 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경제개발에 먼저 성공한 개척자적 국가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도전이라기 보다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機會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두번째 도전은 세계경제여건 내지 기존의 國際秩序 변화에 따른 것이다. 소위 정보화 관련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冷戰의 종식은 세계경제의 '깊은 통합(deep integration)'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를 '국경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화 하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즉 '세계화'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추세의 가속화는 여러 가지 정책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세계시장에서 企業間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는 점과 國內政策의 자율성 혹은 정책에 관한 國家主權(national sovereignty)마저 어느 정도 제약하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곧 출범하게 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경제의 無限競爭時代로의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

이렇게 달라진 여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은 經濟優先主義에 입각한 國家經營에 힘쓰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각종 經營革新과 함께 소위 세계적 기업(global corporations)의 활용, 그리고 각종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서 소외되지 않음은 물론 이를 적극 활용하여 무한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인 것이다.

우리의 대응 ; '世界化 構想'의 실천방안

앞에서 지적한 對內外的 요인들이 몰고 온 도전을 잘 극복하여, 이를 우리 경제가 先進·統一經濟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수없이 많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국민 모두의 國際的 眼目を 높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閉鎖的 思考方

式과 外國, 外國人, 外國企業, 外國資本, 그리고 外國技術에 대한 무조건적 거부감과 배타심, 혹은 패배감에서 벗어나 ‘남과 함께 일하고, 또 협조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의 적절한 意識改革 없이는 세계화 추세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세계화 추세의 적극 활용을 통한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國家競爭力 提高를 기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次世代를 위한 教育改革과 기존 세대를 위한 해외연수·훈련·장기 파견과 아울러 분야별 國際專門人集團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정부 공직자의 경우 해외연수, 파견근무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人事制度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社會的 인정감을 높여줄 뿐 아니라, 추후 昇進과 補職에 이런 해외경험이 유리하게 반영되는 구체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심지어 행정부서의 어떤 자리는 정부가 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만이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제도의 도입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이 일한 해당 國際機構나 외국기관의 직속상사로 부서의 업무과과를 직접 받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하여 이들이 거기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국제기구나 주요국의 적절한 부서에 파견·근무하게 하는 제도는 세계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없는 중간규모의 나라인 우리의 경우 여러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英語를 위시한 외국어 교육의 조기실시 및 강화 그리고, 외국어로 강의하는 ‘國際大學’의 설립·운영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國際大學에서는學位 프로그램도 중요하나 정부 고위공직자와 기업체 임원 등을 위한 最高經營者課程의 운영도 중요하다.

기업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다.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 혹은 經營技法을 돈 주고 따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보다는 외국자본과 외국기업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필요한 經營技法이나 생산관련 기술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외국 기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기업과 손잡으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도 우리 기업으로부터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 기업 스스로가 창출해 내야 한다. 즉 生産技術이든, 경영기법이든 간에 상대방이 원하는 ‘세계에서 第一가는 것’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함은 물론이며, 우리 기업내에도 외국인과 함께 일하고 協調할 수 있는 專門人力 양성에 많은 자원을 할애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국인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우리의 位相을 공고히 하고 ‘地球村 마을’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책임있고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도 많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公共財(public goods)’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多者間 協議體에도 적극 참여하고 기여할 뿐 아니

라, 企業活動을 제약하는 정부의 각종 規制와 시책도 국제규범에 맞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또 그 적용에 있어서도 透明性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開拓者的 國家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기 보다 오히려 값진 기회가 되도록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정부를 포함하는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에 오늘날의 後發開途國들과 前 計劃經濟體制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너무나 많은 人的資源을 갖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과 기업부문의 一線에서 물러나 있는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값진 經驗과 資質이 거의 낭비되는 경우마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인력들을 활용하여 오늘날의 後發開途國들과 前 計劃經濟體制下의 여러 나라들을 도와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과 협조하여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尊敬받는 나라, “地球村에서 自手成家한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존경받을 일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經濟的인 實利도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韓半島 統一의 비용조달에도 도움이 되고 이 지역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東北亞 開發銀行’의 창설을 일본·미국 등과 함께 적극 추진하여, 우리의 풍부한 人的資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1964)

미국 UCLA 석사(1966), 박사(1969)

미국 뉴욕대학교 교수(1969~73)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부원장(1973~8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자문관(1981~82)

산업연구원 원장(1983)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1983~87)

재무부 장관(1987~88)

IMF 특별고문(1989~현재)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1993~현재)

세계경제연구원 후원회 가입안내

-후원회원의 종류 : 법인회원, 개인회원

-후원회원에 대한 주요 서비스 :

- 연구원주관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참가비 할인
- 연구원 발간 각종 간행물 및 회의자료 제공
- 주요 행사의 비디오 및 녹음 테이프 제공
- 법인회원을 위한 특별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법인회원을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

-회원 가입 문의 : 551-3334~7

세 계 경 제 연 구 원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s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무역센터 2505

전화 : 551-3334/7

Fax : 551-3339